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

“ 화근 덩어리 현대석유화학 ”

현대석유화학의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모양이다. 현대석유화학의 대주주들이 완전감자에 사실상 동의해 채권단이 경영권 인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현대계열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석유화학 지분의 완전감자에 동의한다는 뜻을 채권단에 통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나, 채권단이 완전감자 동의서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 출자전환을 통한 증자수순을 밟는 것이 오류임을 모르는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손익이 있을지는 눈감은 봉사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3월말 현재 현대석유화학의 지분은 현대중공업 49.87%, 현대자동차 14.99%, 현대건설 11.63%, 현대산업개발 9.53%, 현대종합상사 6.95%, 기타 7.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채권단에 이미 경영권이 넘어가 있는 현대건설과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현대종합상사 등 일부는 완전감자에 수동적이라고 들리고 있으나 이미 물건너 간 일이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는 왜 수천억원이나 수백억원은 족히 되는 현대석유화학의 지분을 포기하고 경영권을 넘기는데 동의했고, 채권단은 왜 4000억-5000억원의 출자전환 및 1조원 이상의 신규지원을 감내하면서까지 현대석유화학의 경영권 인수를 서두르는 것일까? 정상적인 금융상식을 가지고 석유화학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경제인이라면 대단히 의아해할 것이다.

Arthur Anderson이 실사 보고서에서 현대석유화학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당장 95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5000억원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4500억원은 신규자금 투입을 통한 증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과연 9500억원만 투입하면 3-5년 후 현대석유화학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단연 「NO」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Arthur Anderson은 현대석유화학의 10년간 자산가치를 2조8000억원으로 보아 총부채 2조6000억원을 2000억원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과연 1조원을 출자전환해 부채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대폭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만한 채산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부채 1조6000억원의 이자가 연간 1000억원은 족히 되고, 여기에 원금을 10년동안 상환한다면 매년 1600억원을 갚아야 하니 영업이익이 최소한 2600억원은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석유화학 경기가 1995-96년처럼 호황을 누릴 수 있다면 10년이 아니라 5년동안에도 부실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겠지만 중동의 석유화학 신증설 기세가 무섭게 달아오르고, 중국이 일정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바보스럽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마늘파동이니 중-일 무역전쟁이니 하면서 그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니 ▲2002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시설차입금 및 리스차입금 7000억원에 대한 채권단의 상환연장 ▲2002년 말 만기되는 60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한 주주와 회사 및 채권단의 차환 발행 및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나프타 구매를 위한 2억5000만달러의 유전스 한도 제공 ▲주주들이 보유한 전환사채(CB) 1500억원의 주식전환 등 Arthur Anderson이 제시한 현대석유화학의 구조조정 방안은 헛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및 채권단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억측이 회자되는 배경이다.

2000년말 기준 자산규모 9조9420억원에 2000년 매출 6조6260억원, 영업이익 7530억원의 현대중공업이 추가지원을 포기하고 2700억원에 달하는 현대석유화학 지분을 포기한 배경을 곰곰이 되씹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2000년 매출 5조577억원, 영업이익 5137억원, 당기순이익 2759억원으로 상당한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렸는데 왜 포기하겠는가? 채권단이 물려도 단단히 물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삼성자동차를 매각하면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현대석유화학 처리에 있어서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일까? 삼성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면 아니되고, 현대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도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화학저널이 1998년 현대석유화학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그만한 근

거가 있고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부와 현대그룹은 과연 어떠한 관계이기에 국민의 세금과 예금을 타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인가?

<화학저널 2001/7/2>